

삼원페이퍼 해외그래픽인쇄물2011전

# 유명 디자이너 그래픽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 진행

삼원페이퍼갤러리(대표 이연옥)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열린 해외그래픽인쇄물2011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Paper Beyond Your Creativity!! It's More'를 내세운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페이퍼 어플리케이션 작품 250여점이 선보였으며 카탈로그, 에뉴얼북, 친환경 브로슈어, 상업 카탈로그, 캘린더, 카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선보였다.

특히 Arjowiggins "Printed Me"공모전과 Fedrigoni "TOP" 공모전 수상작이 선보여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 전시회 기간에는 지난 7월 2일 한지민 씨의 스페셜 포트폴리오 바인딩 세미나가, 9일에는 디자이너 김나무, 정진열의 그래픽 세미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업계 관계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 새 기술과 새 소재 활용해 흥미로운 기법 선보여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삼원페이퍼갤러리의 차은실 주임은 이번 전시회의 컨셉에 대해 “21세기의 디자인은 인쇄기술의 진보와 신기술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소재들과의 조화를 기본으로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디자이너들은 소비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새롭고 다양한 기법들의 개발과 더 흥미로운 비주얼을 디자인함으로써 보다 독창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을 창조하고자 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또한 ‘PAPER BEYOND YOUR Creativity!! IT’S MORE’ 해외그래픽인쇄물 2011 전시회는 종이 디자인을 완성하는 최고의 도구로서 디자이너의 작업을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입증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은 영국, 일본,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카탈로그, 브로슈어, 캘린더, 애뉴얼 리포트, 작품집 등으로 국내에서는 접하기 힘든 해외의 우수 인쇄 제작물이 다수 선보였다. 놀라운 후가공과 인쇄기술이 결합하여 제작된 최신 트렌드가 반영되었으며 단순하게 인쇄만으로 디자인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종이 가진 가치를 기능적, 예술적 그리고 시각적 측면에서 표현의 주체로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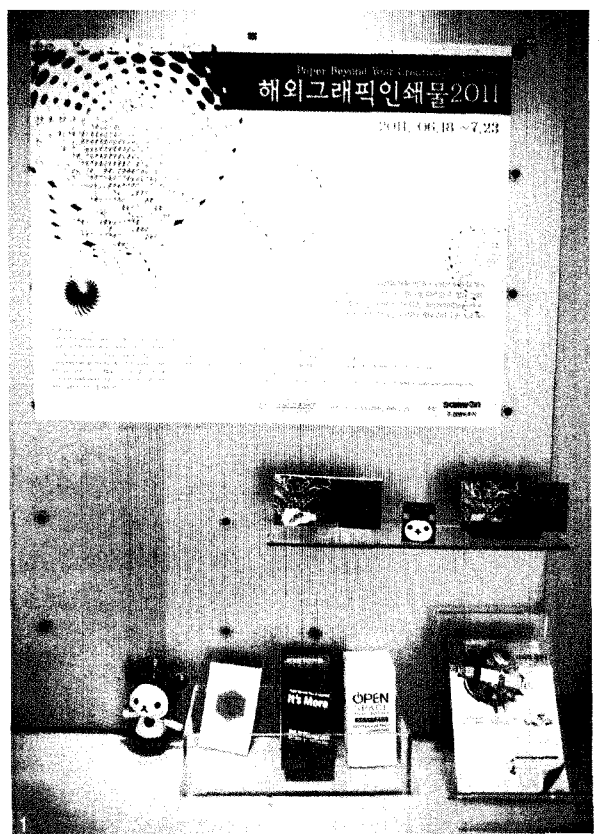
특히 이번 전시회 동안에는 영국 및 프랑스의 세계적인 제지사인 아조위킨스사에서 주최하여 세계 25개국에서 참여한 ‘Printed Me’ 공모전의 우수작품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파인 페이퍼 제조사인 페드리고니사에서 주최한 ‘TOP Application공모전’의 수상작품도 다수 선보여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디자인과 인쇄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 디자이너 초대해 그래픽 세미나 등 열어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을 위해 정진열, 김나무 디자이너를 초대하여 두 디자이너의 예술철학과 작업과정에 관한 생생한 스토리를 들려준 그래픽 세미나는 짧은 시간에 예약이 완료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또한 북아트에 관심 있는 학생, 많은 일반인들을 위해 준비한 바인딩 워크숍도 높은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 연중 다양한 시각 느낄 수 있는 전시회 개최

근래 리뉴얼을 단행한 바 있는 삼원페이퍼 갤러리는 2층의 제1전시관에서 연중 다채로운 시각을 느낄 수 있는 테마전시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단순하게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의 강연과 실연도 함께 갖는 시간이 종종 마련되고 있어 생동감이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를 공유하겠다는 것이 삼원페이퍼 갤러리의 목표이다. 한편, 지하 1층의 제2전시관은 커뮤니티 관계자와 참여자들의 다양한 색깔과 방향, 관심 및 생각을 자유롭게 드러낼 자리를 제공해 페이퍼크라프트 분야의 바람을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



1. 해외그래픽인쇄물 전시회장입구에 전시된 인쇄물들
2. 여성 취향의 분위기를 낸 다이어리와 인쇄물
3. 다양한 모습으로 제작된 캘린더
4. 형이상학적이고 난해한 디자인의 인쇄물도 다수 선보였다.

